



고운사의 상징 '가운루'

경북도 유형문화재 151호인 고운사 가운루. 아래로는 계류가 흐르고 뒤로는 산과 구름을 접하는 신선의 세계가 펼쳐진다.

개울사이 두 가람 잇는 '다리'

고운사 가운루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구계동에 있는 고운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16교구의 본사로서 당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현존하는 건물만 29동에 이르는 큰 규모의 사찰이지만, 전국적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찰이다. 아마 조계종 지역 본사 가운데는 가장 무명의 가람이 아닐까. 그러나 이 절은 상대사가 681년에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현재까지 경북 북부 지방의 중심 가람으로서 전통을 자랑하고, 가람 건축의 책임새도 뛰어난 곳이다.

의상 창건설 말고도 신라말의 대학자이며, 이단아였던 최치원이 창건했다는 설도 전해져서 더욱 이채롭다. 전설인즉, 고운 최치원이 여지, 여사라는 두 스님이 이곳에 와서 가허루(駕虛樓)와 우화루(羽化樓)라는 두 누각을 건립하였고, 이 때부터 최치원의 호를 좇아 고운사라고 불리웠다는 것이다. 최치원은 유학자이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공류도를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공류도란 신라 화랑들과 같이 산천을 찾아 다니며, 심신을 단련하고 자연을 숭상하는 수행법이자 일종의 종교적 행위였다. 당대의 대 지성이요, 풍운아였던 최치원이 언제 죽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는 가야산에서 산신이 되었다는 설이 흥미를 정도로 신선도나 도교의 성인에 가까웠다.

최치원과 밀접한 인연을 간직한 고운사는 도교적 이미지로 가득한 절이다. 뒷산의 명칭도 몽계구름을 뜻하는 풍운산이고, 최치원이 세웠다는 가허루나 우화루 역시 도교의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체를 뜻한다. 물론 도교 또는 공류도의 도사가 불교 사찰을 창건했다는 전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파른다. 단지, 이 땅의 산세가 신선이 노닐만한 선경이라는 점,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신라말에 최치원과 관계가 되었기에 형성된 창건 연기가 아닐까. 가허루는 현재 가운루(駕雲樓)로 바뀌었고, 우화루는 우화루(雨華樓)로 이름이 바뀌었다. 도교적 이름에서 불교적 이미지와 이름들로 연편이 변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가람은 여느 불교 사찰들과는 달리, 색다르게 만들어졌었다. 원래는 두 계곡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 절터를 잡았다. 마치 Y자형으로 생긴 개울을 이용하여, 북쪽에는 극락전을 중심으로 20여동의 전각들이 개울을 따라 일렬로 서 있었

92년 개울 매우기전엔 계곡에 뜬 배와 같아

고, 남쪽에는 모니전(대웅전의 전신)을 중심으로 독립된 암자가 경영되었다. 말하자면 두 개의 독립된 가람이 개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었던 모습이었다. 그러나 1992년 거대한 대웅전을 새로 지으면서, 남쪽의 암자를 없애 버렸고, 개울도 덮어버려서 원래의 절모양이 사라져 버렸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비록 남과 북, 두 개의 사찰로 나뉘었지만, 절국은 하나의 가람이었다. 개울로 나뉘어진 두 가람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바로 사찰 입구에 세워진 거대한 가운루이다. 가운루는 우선 개울 위에 세워져, 남과 북의 양 쪽을 이어주는 다리이

면서도 건물이었다. 길이가 16.2m에 최고 높이가 13m에 달하는 대규모 누각이다. 3층의 가늘고 긴 기둥이 계곡 밑까지 내려가 이 거대한 몸체를 떠 받치고 있다. 마치 양쪽의 언덕에 걸친 다리와 같고, 계곡 위에 동심 떠 있는 배와도 같다. 옛 기록에도 가운루는 "누각에 서면 아래로는 계류가 흐르고, 뒤로는 찬란한 산들과 구름의 바다를 접하는 신선의 세계"라고 극찬한 절경이다. 한국의 사찰들 가운데, 이처럼 극적인 모습의 누각은 보기 어렵다.

얼핏 생각하면, 가운루는 가람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운루의 위치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처럼 과장된 정도로 규모를 키운 까닭을 상상할 수 있다. 사찰의 입구에서 있는 가운루는 고운사의 얼굴이다. 원래부터 두 편으로 나뉘어 성장해 온 고운사의 독특한 구조상, 무엇인가 가람을 대표할 하나의 얼굴이 필요했고, 이를 가운루로 삼은 것이다. 또한, 가운루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두 개의 사원을 서로 연결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통합체이기도 했다. 실제로 가운루는 가람의 진입로 상에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보다는 개울에 의해 나뉜 두 부분을 연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강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불리함을 감수하고라도 개울 위에 세운 것이다. 한동의 건물로 가람 전체를 통합한다니 놀라운 발상이 아닌가?

우연한 감응은 없다. 가운루의 형태나 규모, 그 위치가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은, 그 속에 담겨진 의미와 옛 스님들의 뜻깊은 사려 때문이다. 비록 최근의 중창 불사가 고운사의 가람구조는 훼손되었지만, 그나마 가운루는 보존되어서 예전 가람의 서원들을 들려준다.

"책속에 신행과 포교 있다"

불서 읽기 생활화

사찰 도서실을 중심으로 불서읽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본사가 펼쳐고 있는 '사찰에 도서실을 만들시다' 연중캠페인과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들이 불서읽기를 주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사찰은 기도 수행을 하는 곳 외에 불서를 읽으며 신심을 다지는 곳이란 새로운 공간적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도서실 개설을 통해 불자들의 불서읽기를 이끌고 있는 사찰이 아직은 소수지만 전망은 밝다. 도서실을 운영하는 사찰들이 신도들은 물론 지역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으며 신행과 포교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같은 변화의 움직임은 도심포교당이나 승가대학(강원), 교양대학 등에서 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곳들은 대부분 도서실을 열린 교육공간으로 활용,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독서읽기운동, 도서회원모집, 도서기증 운동



카드와 함께 원하는 불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이다. 불광사는 불서읽기운동 범국민적 확산을 위해 사찰 인근 지하철역 등지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불서와의 만남이 곧 부처님과의 만남'이란 주제 아래 펼쳐고 있는 불서읽기 운동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일간 '불광'과 불광출판부 도서관 '한강수'와 공동으로 펼쳐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등록된 회원만도 약 2천3백여명에 이를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불광사 불서읽기 캠페인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일시적 차원이 아닌 신행의 중요한 방편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불서읽기 운동을 장기간 펼쳐온 점이 주요했다.

불서읽기 운동에 가입한 회원들은 독서와 토



○방과후 사찰 도서실에 둘러 불서를 고르고 있는 청소년들.

도서회원 모집등 사찰 적극 나서야 불광사 10년째 불서읽기 캠페인 '호응'

등 일부 사찰에서 펼쳐고 있는 사업이 신심증장과 포교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이들 도서실이 있는 사찰 주지스님들의 공통된 의견인 점에서 사찰도서실 만들기 및 유관사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서읽기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고 있는 사찰 가운데 하나가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불광사(법주 지장)이다.

불광사는 90년부터 꾸준한 불서읽기 운동을 다양하게 펼쳐고 있다. 불광사 불서읽기 운동 가운데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매일 일간 '불광'지에 게재하는 캠페인 사교, 내용은 주로 직장이나 학교, 가정, 병원에서 불서를 자녀 읽을 것을 강조하는 문구들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생일축하 선물로 불서를 보내자'라는 것이다. 생일 1주일전 주소와 이름, 그리고 축하문안을 전화로 연락하면 생일 축하

문 등을 통해 교양과 신심을 쌓으며 다른 법우들에게 불서를 권장하는 역할도 한다. 불광사는 신도들의 적극적인 불서읽기 열정으로 최근에는 도서관의 규모도 늘리고 불서도 보충했다. 특히 불광사는 창건 25주년을 맞아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불광(http://www.bulgwang.org)을 통해서 불서읽기운동과 불서읽기 회원을 모집하는 한편 불서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사찰에 도서실을 만들어 각종 불서를 두루 갖추고 스님들이 책 읽기를 꾸준히 권한다면 불서 읽기는 확산될 수 있다.

하지만 교계의 불서읽기 운동은 아직 걸음마 단계, 이를 보다 확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찰들이 도서실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opia.com)



傳統黃土房

지정황토침대

"지정황토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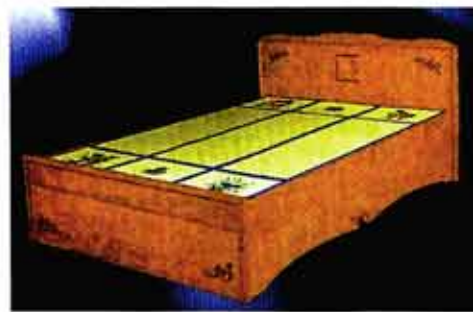
한 불자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황토침대"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황토침대의 효능그 가치를 평가 하십시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화함을 느낄 수 있는 황토 천연적으로 만든 지정황토침대에서 흙의 기(氣)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지정황토침대는 온도조절이 가능하여 찜질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순수황토와 쉰, 느릅나무액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건강은 물론 자연의 향이 더없이 상쾌함을 주며 황토매트에서 아무것도 깔지 않고 잘 수 있는 특성과 전자파와 수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지정황토산업에서 시공한 국내최초 황토군법당 27사단 설립전 현판식 1999.9.19



지정SILVER황토침대 싱글 #규격 190x96x39



침대에 황갈뚝자리를 배치하여 더욱 시원한 모습의 지정황토침대 #규격 190x131x39

주요생산품목

- 황토주택건설
• 황토타일
• 황토침대
• 황토벽돌
• 방바닥 및 벽마감시공 (등록업체)

전국대리점 및 영업사원모집

사무실 : (032)427-7898~9, 427-8080
공 장 : (032)697-2365~6
팩스 (032)427-7997 / PCS (016)360-2236

자인과 인간+휴과 인간=건강한 내일

(주)지정 황토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황토에는 병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데... (동의보감참조)
(주)지정산업에서 개발한 황토방이나 황토침대는 열처리된 전혀 하지 않은 순수황토에 식물성을 첨가하여 자연적으로 만든 획기적인 제품으로 인체에 유익한 흙은 물론 독특한 향기까지 맛볼 수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황토방으로 개조하여 도배나 장판을 깔지 않고 흙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공합니다.